

우리말의 동사성 합성어

김 진 형

(한국기술교육대학)

1. 머리말

하나의 음운단위로서의 단어가 두개 이상의 형태소나 단어로 이루어진 복잡한 내부 구조를 가질 때, 이는 크게 나누어 파생어형성이나 굴절어형성, 혹은 합성어형성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들 각각의 형성과정이 문법의 어느 부문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위의 어형성과정들 가운데 합성어형성, 그 중에서 동사성 합성어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동사성 합성어들이 통사부의 구구조로부터 형성되며 그들의 적격성이 통사부의 독립적인 일반원리들에 의해 판정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합성어를 구성하는 성분들 사이의 관계가 형태구조에 근거하여 몇가지 유형으로 분류 해석된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이러한 중험적 논의를 통해 동사성 합성어의 형성이 통사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¹⁾

2. 동사성 합성어의 형태구조

본고에서는 다음의 몇가지 사실들에 근거하여 동사성 합성어의 형태구조를 $[[X^n-V]_V-i/\text{음/기}]_N$ ($n \geq 2$)라고 보고 이러한 형태구조에 근거하여 적절한 의미해석이 이루어진다고 보겠다.

첫째, 통사적인 측면에서 동사성 복합어는 그 적격성 판정에 있어서 동사가 핵이 되는 동사구와 체계적인 관련성이 있으며, 동사의 하위범주들이 동사성 합성어의 형성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 (1) a. [논을 같다]_{V'}²⁾ ~ 논갈이
[자리를 바꾸다] ~ 자리바꿈
[땅을 파다] ~ 땅파기
- b. 아이들이 [그림을 보다]_{V'} ~ *아이들 보이
나방이 [벌레를 먹다] ~ *나방먹음
[허리에 칼을 차다] ~ *허리차기

-
- 1) 동사성 합성어의 적격성 판정에 통사부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 외에, 통사부의 출력형인 구구조가 합성어 형성에 관여하는 생산적인 예들도 통사적인 합성어 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헌집]_{N'} 고치기, [먼산]바라기, [사랑의 쌀] 나누기, [한되]들이, [여러해]살이, [남의 집]살이 ...등).
 - 2) 동사성 합성어의 입력부가 통사부의 V' 인 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논의하기로 하겠다.

(1)에서 우리는 동사의 논항구조가 동사성 합성어 내의 제1요소³⁾에 의해 만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합성어가 적격의 판정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사성 합성어의 형태구조를 $[[X-V]_V\text{-접사}]_N$ 로 설정하고 Chomsky(1981)의 투사원리(Projection Principle)⁴⁾가 구구조 단계에서 뿐 만아니라 단어 단계인 $[X-V]_V$ 안에서도 적용된다고 보면 일관성있게 설명될 수가 있다. (1a)가 $[[\text{논-갈}]_V\text{-이}]_N$ 의 결합구조를 가진다고 볼 때, 동사 갈다는 동일한 통사범주가 유지되는 $[\text{논-갈}]_V$ 내에서 자신의 자매요소인 논에게 내부논항에 해당하는 수동자의 의미역을 의미역 동일시⁵⁾를 통해 부여함으로써 적격의 구조가 된다. 이에 반하여 $[[\text{아이들-보}]_V\text{-이}]_N$ 의 구조를 가지는 (1b)에서 안 이들은 보다의 외부논항이지 내부논항이 아니므로 $[\text{아이들-보}]_V$ 내에서 동사 보다의 논항구조가 만족되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1b)의 예들은 제1요소가 외부논항으로 해석되는 경우 모두가 비적격의 합성어가 된다.

둘째, 의미해석의 면에서 동사성 합성어의 제1요소는 제2요소 내에 있는 동사의 논항으로 해석되어 그 의미가 하나로 고정된다는 점에서, 합성어의 구성소 각각이 독립적이고 그들이 지니는 의미적 자질됨에 근거하여 가능한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어근 합성어와는 구별된다고 하겠다.

- (2) (a) $[[\text{꽃-꽃}]_V\text{-이}]$ '꽃을 꽃는 일/기술'
 (b) $[[\text{꽃}][\text{집}]]$ '꽃을 파는 집'
 '꽃으로 만든 집'
 '꽃을 만드는 집'
 '꽃처럼 생긴 집'
 '꽃이 많이 피어 있는 집'...

셋째, 형태적인 면에서 동사성 합성어의 제2요소는 자립성을 결여한, 스스로 독립해 존재할 수 없는 어휘항목이다. 이런 점에서 제2요소가 동사에서 파생된 합성어들일지라도 서로 다른 결합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본다.

- (3) (a) &돋이 해돋이, 움돋이
 &짓기 글짓기, 집짓기
 &갈림 길갈림, 못갈림
 (&는 가능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어휘항목을 나타낸다.)
 (b) 요즘들어 벌이가 좋다 돈벌이, 밥벌이
 시냇물이 굵이에 와서 빙빙 감아 돈다 강굽이, 물굽이

(3a)의 예들은 동사에서 파생된 제2요소들이 자립성을 결여하고 있는 $[[X\text{-동사}]\text{-접}$

3) 합성어의 표면구조를 $[[X][Y]]$ 라고 가정할 때, X를 제1요소, Y를 제2요소라고 지칭하겠다.

4) Chomsky(1981: 29)의 투사원리에 따르면 어떤 어휘항목의 모든 하위범주적 특성은 통사적 층위인 D-구조, S-구조, 논리형태에서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Sproat(1986)이 제안한 투사원리에 대한 제약율 받아 들어 동사성 합성어 내부의 동사는 자신의 통사범주가 유지되는 영역 내에서 동사의 논항구조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보겠다.

5) 의미역 동일시가 이루어지는 자세한 과정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사]의 구조를 가지는 동사성 합성어이고, (3b)의 예들은 제2요소가 독자적인 어휘항목들이므로 [[X][동사-접사]]의 결합구조를 가지는 어근 합성어로 분석된다.

넷째, 음운론적인 면에서 동사성 합성어는 [수식어-주요부]([modifier-head])의 구조를 가지는 종속 합성어에서 주로 관찰되는 사이시옷 첨가규칙⁶⁾에 의한 된소리를 보이지 않는다.

- (4) (a) [[N][N]]_N: [[잠][자리]], 보름달, 안방, 등불, 술방울
- (b) [[N][V-접사]]_N: [[돈][벌-이]], 밥벌이, 강급이, 물급이
- (c) [[N-V]_V-접사]]_N: [[논-갈]-이], 고기잡이, 자리바꿈, 술래잡기⁷⁾

두개의 명사 사이에 첨가되어 후속 명사의 초성을 된소리로 바꾸어 주는 사이시옷 첨가규칙은 두개의 명사가 결합된 합성어에서 두 요소 각각의 존재를 뚜렷이 유지하려는 심리적 이유에서 비롯된 무성의 휴지를 음성적으로 구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4a)의 예들은 모두가 종속 합성어의 구조를 가지는 어근 합성어로서 제2요소의 초성이 모두 된소리로 발음된다. 한편 제2요소가 동사에서 파생된 형태인 (4b)와 (4c)의 예들을 주의깊게 살펴 보면 (4b)에서는 제2요소의 초성이 된소리로 발음되지만 (4c)에서는 그렇지 못함을 알게 된다. 앞에서 언급한 제2요소의 자립성 여부와 결부시켜 볼 때, 이는 (4b)와 (4c)가 서로 별개의 형태구조를 가지는 데에서 연유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4b)와 (4c)의 예들 모두에서 제2요소가 비록 동사에서 파생된 형태이기는 하지만, (4b)의 예들은 [[명사][동사-접사]]([돈][벌이])의 구조를 가지는 어근 합성어이고, (4c)의 예들은 [[명사-동사]-접사]([논-갈]-이)의 구조를 가지는 동사성 합성어가 된다.

음운적 환경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4b)와 (4c)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규칙적용의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보아 사이시옷 규칙은 통사형태구조에 민감한 형태규칙으로 여겨지며, 나아가 이것은 동사성 합성어의 형태구조를 [[X-동사]_V-접사]]_N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하겠다.

다섯째, 동사성 합성어의 형태구조를 [[X-동사]-접사]]로 파악함으로써 제1요소 위치에 부사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이 설명된다.

- (5) 바로꽃이, 마구잡이, 막살이, 거듭남, 거저먹음, 가로쓰기, 마주나기

우리말에는 부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결합방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위의 예들은 [[부사-동사]-접사]]의 형태로 분석하여야만 올바른 의미해석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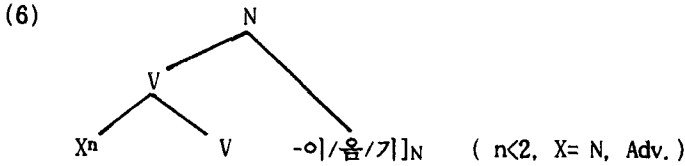
-
- 6) 사이시옷 첨가규칙이 통사형태적인 면에서 [[수식어]_N[주요부]_N의 종속적 구조를 가지는 어근 합성어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예측되지만, 다음에서 보듯이 이를 일반화된 규칙으로 기술하기에는 예외가 많이 발견되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다음으로 미루고자 한다.

- (i) (a) 사이시옷규칙이 적용되고 있는 예: 물방울, 머릿고기, 콩깃밥, 기름병
- (b) 사이시옷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 말방울, 돼지고기, 개밥, 유리병

- 7) 동사성 합성어임이 분명한 밭갈이, 막살이, 집짓기, 턱반이 등에서 된소리 현상이 관찰되는 것은 [-son] → [+tense]/[-son]___라는 음성음운규칙에 의한 것이므로 형태규칙인 사이시옷 첨가규칙과는 별도의 것으로 보겠다.

- 8) 부슬비, 혈떡고개, 너털웃음, 산들바람 등의 어근 합성어에서 보듯이 부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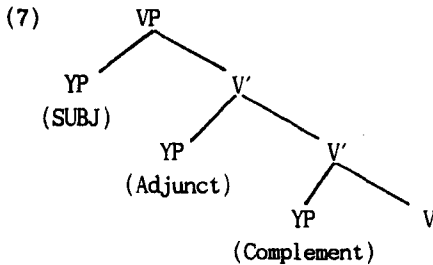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여러가지 증거에 근거하여 동사성 합성어의 형태구조를 [[X-동사]-접사]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 이때 첨가되는 접사는 -이, -음, -기에 한정하고자 한다.



3. 동사성 합성어의 형성규칙

동사성 합성어의 형태구조를 [[X-동사]-접사]로 볼 때 동사는 전체 합성어의 적격성 판정과 의미해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고에서는 동사성 합성어의 형성에 대해 통사적 입장을 취한 Fabb(1984), Sproat(1985) 등의 이론을 받아들여 동사성 합성어가 통사구를 바탕으로 형성된다고 보겠다. 이러한 접근방법을 취할 경우 동사의 하위범주들과 통사원리, 의미역기준, 격표시 등에 근거하여 문장의 적격성이 판단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동사성 합성어의 제1요소에 대한 제약이 별도의 원칙에 의하지 않고 이들 통사원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설명된다는 잇점을 가진다고 본다.

Chomsky(1992)의 최소이론을 받아들여 우리말의 핵심적인 절구조를 도식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7)의 구조에 따르면 주어는 VP의 지정어(specifier) 위치에 나타나게 되고, 부가어나 보어 등은 중간투사범주인 V'의 구성소가 되고 있다. 보어와 부가어를 V' 내에 두고 주어를 이 영역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다음과 같은 비대칭성이 설명된다.

- (8) (a) 책꽂이, 구두닦이, 앞가림, 눈속임, 집짓기, 돈내기
 (b) 겨울날이, 개구멍받이, 웅숫음, 말다툼, 널뛰기, 마주나기
 (c) *아이들보이 ('아이들이 보다'), *원숭이물기 ('원숭이가 물다')

명사를 수식하는 예들이 발견되지만, 이들이 모두 의태 의성어에 국한되어 있고 그 자체로서 자립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부슬(부슬 내리는) 비, 헐떡(거리면서 뛸는) 고개, 너털(거리면서 웃는) 웃음, 산들(거리면서 부는) 바람 등과 같이 관계절의 축약형으로 여겨지므로 위 논의에 대한 반증의 예로 보지 않겠다.

(8a), (8b)의 제1요소들은 각각 동사의 보어와 부가어들이로서 적격의 합성어를 형성하지만, (8c)의 경우는 제1요소가 동사에 대한 주어의 역할을 하는 한 적격의 합성어가 되지 못한다.⁹⁾ 이는 동사성 합성어를 V'의 통사구문에서 도출해 냄으로써 별도의 제약적 장치없이 간단히 설명할 수가 있다.

이제 통사부의 V'라는 기저 입력부로부터 형성되어 [[X-동사]-접사]의 형태구조를 갖는 동사성 합성어에 통사원리들이 적용되어 그 적격성이 판정되고 적절한 의미해석을 부여받는 과정에 대해 실제로 알아 보기로 하자.

4. 동사성 합성어의 의미해석

4.1 제1요소가 논항인 경우

(6)으로 표시된 동사성 합성어의 형태구조에서 접사 -의, -음, -기는 동사를 명사로 바꾸어 주는 통사범주를 가지며, 행위를 나타내거나 행위자, 또는 도구로 해석되는 논항구조를 가진다.¹⁰⁾ -의, -음, -기의 어휘목록은 각각 다음과 같다.

- (9) (a) -이:]v___]N
 논항구조: <1>
 행위/행위자: <1>
 (b) -음:]v___]N
 논항구조: <1>
 행위: <1>
 (c) -기:]v___]N
 논항구조: <1>
 행위: <1>

접사 -의의 논항구조가 행위자인 경우에 한하여 -의와 -기는 서로 상보적 분포를 보이며, 동사어간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 모음충돌을 피하기 위해 -기가 된다고 본다(구두닥이, 길잡이 ~ 양치기, 알배기). 그러나 행위의 논항구조를 가질 때에는 음운론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독립적인 행동양상을 보인다고 하겠다.

그러면 이들 접사가 관여하여 형성되는 동사성 합성어에서 제1요소가 동사의 하위범주를 내에 표시된 내부논항인 경우의 예들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 (10) (a) -이: 가슴앓이, 바람막이, 벼훔이, 논갈이, 길잡이
 (b) -음: 무릎꿇음, 앞가림, 자리바꿈, 무숙음, 감자조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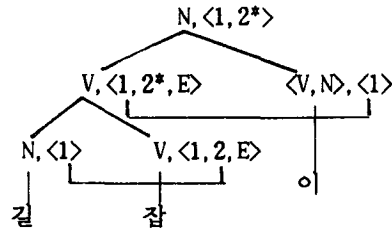
9) 한편 해돋이, 피둘기, 길갈림, 보리누름 등의 예와 같이 문장의 주어구실을 하는 명사가 제1요소 위치에 나타나는 합성어들을 쉽게 대할 수 있으며, 이들의 적격성에 대한 논의는 의미해석의 부분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10) 접사 -의, -음, -기의 논항구조가 그밖에 장소를 나타내거나 (살받이, 복풍받이 등) 방향을 나타내거나 (막대잡이, 부채잡이 등), 혹은 시간을 나타내거나 (이슬받이, 보리누름, 잔풀나기 등) 기타 여러가지 의미를 지닐 수 있으나 생산적이지 못하므로 여기서의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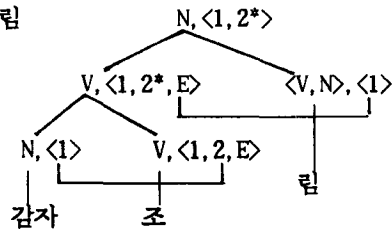
- (10) (a) -이: 가슴압이, 바람막이, 벼흙이, 논갈이, 길잡이
 (b) -음: 무릎꿇음, 앞가림, 자리바꿈, 무숙음, 감자조림
 (c) -기: 술래잡기, 땅파기, 목매기, 알까기, 줄넘기

(10)의 유형들은 동사성 합성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장 생산적인 예들이다. 루사원리를 비롯한 통사원리들이 적용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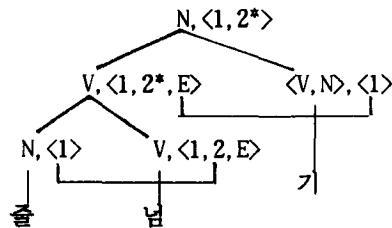
(11) (a) 길잡이



(b) 감자조림



(c) 줄넘기



위의 동사들은 자신의 하위범주를 속에 주어에 해당하는 외부는항(1)과 목적어에 해당하는 내부는항(2), 그리고 모든 동사에 부여되는 행위의미역(E)을 가지며 행위의미역 E는 품사가 바뀌는 명사로는 상속되지 않는다고 본다. Chomsky(1981)의 루사원리와 Sproat(1986)의 루사원리에 대한 제약에 따라 동사는 자신의 통사범주가 유지되는 범주 안에서 논항구조를 만족시켜야 한다.

(11a)에서 제1요소 길은 동사 잡다의 내부는항에 해당되므로 동사의 논항구조 내에 있는 내부는항과 의미역 동일시(θ -identification)¹¹⁾를 통해 연결됨으로써 루사원리에

- 11) Sproat는 Higginbotham(1985)의 의미역 부여방식의 분류를 받아 들여 동사구 내에서 동사가 자신의 보어에게 의미역을 부여하는 의미역 표시(θ -marking)와 동사성 합성어 내에서 동사가 제1요소에게 의미역을 부여하는 의미역 동일시(θ -identification)를 구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동사구의 구조는 증가하는 루사범주이고, 동사성 합성어는 동일한 루사범주임에 근거하여 동사성 합성어의 의미역 부여에는 의미역 동일시가 관계한다고 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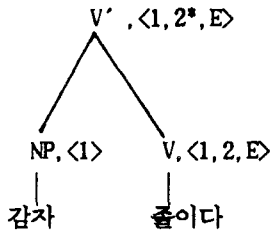
대한 제약을 만족시켜 줄 뿐 아니라 적절한 수동자의 의미역을 부여받게 된다. 한편 접사는 그것이 가지는 의미역에 따라 행위자나 행위의 의미역과 동일시되어 (11a)의 경우처럼 행위자를 뜻하거나 (11b, c)의 경우처럼 행위를 뜻하게 된다. 고기잡이, 윤석받이, 소매치기 등에서처럼 동사성 합성어가 행위명사나 행위자명사의 두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접사의 논항구조가 이중성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두개의 내부논항을 취하는 동사가 동사성 합성어를 만드는 경우에 대해 살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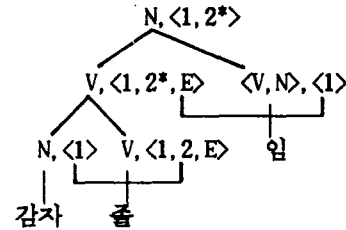
- (12) (a) 양복걸이, 물받이, 책꽂이, 턱받침, 쓰레받기
(b) 목걸이, 국말이, 뒤꽂이, 옆차기, 장내기

(12a)에서는 제1요소가 [주제]([Theme])의 의미역을 가지며, (12b)에서는 제1요소가 [장소]([Locative])의 의미역을 가진다. 얼핏 보기에 (12)의 예들은 동사들의 어휘목록 내에 명시된 두개의 내부논항이 제1요소 위치에서 만족되지 않아 투사원리를 위배하고 있음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의 합성어들은 모두 적격으로 판정된다.¹² 이에 대해 본고에서는 (12)에서의 접사들이 동사의 나머지 내부논항과 동일지표의 관계를 가진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투사원리가 만족된다고 보겠다.¹³

(i) 의미역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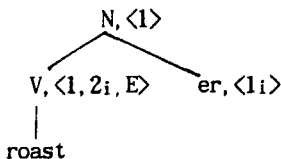


(ii) 의미역 동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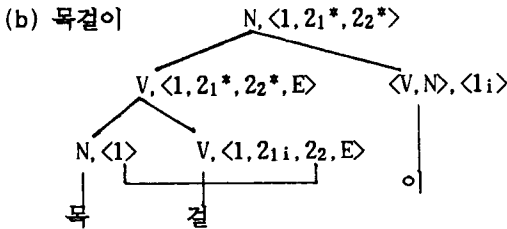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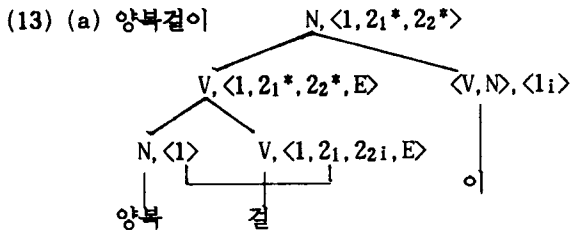


12) 우리말과는 달리 영어에서는 두개의 내부논항을 가지는 동사들은 체계적으로 동사성 합성어를 만들지 못한다 (*baby toy handing, *table boot putting 등). 이는 격인접조건에 의해 동사에 바로 인접한 요소만이 격과 의미역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13) 본고에서 사용하는 동일지표의 개념은 Sproat(1985)에서 인용한 것이다. Sproat는 영어의 roaster '로스트용의 새끼 돼지'처럼 -er이 예외적으로 동사의 외부논항이 아닌 내부논항과 연결되는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 의미역 동일지표 (θ -coindexing)를 이용하고 있다.



-er이 이미 동사의 내부논항과 동일지표화되어 있으므로 -er이 다시 동사의 외부논항과 동일시되는 것을 막아준다. 의미역지표는 접사만이 가지는 유표적인 의미역부여 방식이고, 불규칙한 의미역 연결을 형식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3a)에서 제1요소인 양복은 동사 걸다의 [주제] 논항과 의미역 동일시에 의해 연결되고, 접사 -이는 [장소] 논항과 동일지표로 표시되어, 결과적으로 동사가 가지는 두개의 내부논항이 모두 의미역을 부여받게 되므로, 투사원리가 만족되어 적격의 합성어가 된다. 또한 (13b)에서는 제1요소 목이 [장소] 논항과 의미역 동일시에 의해 연결되고, 접사 -이는 걸다의 직접목적어인 [주제] 논항과 동일지표로 표시되어 두개의 내부논항을 만족시키므로 이 역시 적격의 합성어가 된다. 합성어 전체의 의미는 핵인 접사에 의해 결정되므로 (13a)는 '양복을 거는 제구'의 의미로, (13b)는 '목에 거는 제구'의 의미로 해석된다.

지금까지 살펴 본 예들에서 동사성 합성어의 제1요소는 기저구문에서 동사의 목적어나 부가어로서 기능하고 있다. 동사성 합성어가 통사부의 V'를 입력부로 취한다고 가정한다면 문장의 주어는 동사성 합성어의 형성에서 자동적으로 배제된다. 그러므로 문장의 주어가 동사성 합성어의 제1요소로 오지 않는 것은 더 이상의 아무런 별도 장치 필요로 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가 있다. 그러나 다음의 예들은 제1요소가 문법적 주어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격으로 판정되어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

- (14) -이: 해돋이, 살불이, 움돋이, 눈짓물이, 입비뿔이, 목곶이
 -음: 산울림, 보리누름, 길갈림, 홀소리어울림, 눈적임
 -기: 동트기, 피들기, 잔뜰나기

위의 동사성 합성어에 사용된 동사들을 자세히 살펴 보면 모두가 능격동사라는 공통점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돋다, 울리다, 트다 등은 하나의 논항을 취하는 동사이며, 그 논항은 논리적 주어가 아니라 논리적 목적어이다. 한편 이들 논리적 목적어는 표면구조에서 문법적 주어로 실현되고 있는데, 이는 논리적 주어를 취하지 않는 동사는 격을 부여할 수 없다는 일반적 원리에 따른 것이며, 따라서 논리적 목적어는 격을 받기 위해 주어자리로 이동하게 된다 (△- 돋다 - 해 → 해가 - 돋다). 본고에서는 이같은 관점에서 (14)의 예들의 제1요소가 외부논항에 해당하는 [행위자]의 의미역이 아닌 [주제]의 의미역을 받는한 투사원리를 만족시키므로 모두가 적격의 합성어라고 보고자 한다.

4.2 제1요소가 부가어인 경우

앞에서 보았듯이 통사구문의 V'에는 내부논항뿐 아니라 부가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V'를 입력부로 하여 형성되는 동사성 합성어의 제1요소 위치에는 부가어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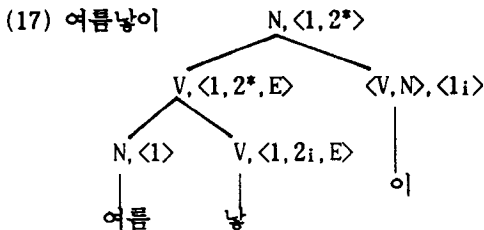
- (15) [장소]([Locative]): 감옥살이, 천정살이, 앞처집, 아래당기, 널뛰기
 [도구]([Instrument]): 손더듬이, 말다툼, 눈겨름
 [시간]([Time]): 하루살이, 여러해살이, 겨우살이, 여름살이
 [출처]([Source]): 산돌이, 땅뿔
 [양태]([Manner]): 머슴살이, 맴돌이, 용솟음, 구름모임, 마주나기, 높이뛰기

위의 동사들은 모두가 보어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선택적으로 부가어를 취하는 완전한 자동사들이다. 따라서 이들 동사들이 동사성 복합어에 사용되는 경우 제1요소는 동사로부터 의미역을 부여받지 못하고, 다만 동사를 수식하는 부가어가 가질 수 있는 여러가지 의미로 해석된다고 본다. 머슴살이, 용솟음 등에서 제1요소가 행위자 명사 일지라도 외부논항에 해당하는 [행위자] 의미역을 받지 못하고 반드시 [양태]를 뜻하는 부가어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은 동사성 합성어의 입력부가 V'에 근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로 여겨진다.

한편 합성어를 이루는데 사용된 동사가 내부논항을 취하는 타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제1요소가 부가어로 해석되어 얼핏 보기에 투사원리나 의미역 조건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는 예들이 있다.

- (16) 여름날이, 개구멍받이, 뼈뜯이, 장조림, 봄베기, 옆차기('옆날')

그러나 이 합성어들은 모두가 생산적인 적격의 단어들로 판정된다. 본고에서는 의미역 동일지표를 이용한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에 의해 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17)에서 보듯이 접사가 동사의 내부논항과 의미역 동일지표에 의해 연결됨으로써 동사의 하위범주들이 만족되어 투사원리가 지켜지므로 적격의 합성어가 되며, 이때 전체 합성어의 의미는 접사에 의해 결정되어 '여름에 낳은 아이'로 해석된다.

우리말의 동사성 합성어에서는 의미역 동일지표에 의한 의미역 부여방식이 생산적이라고 여겨지며, 이같은 분석방법은 합성어가 가지는 의미적 중의성도 설명해 줄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옆차기라는 동사성 합성어에서 접사 -기가 동사의 내부논항과 동일지표로 연결되지 않고 [행위]의 의미역을 가지게 되면 옆차기는 '옆을 차는 행위'로만 해석되며, 한편 접사 -기가 동사의 내부논항과 동일지표에 의해 연결되는 경우에는 제1요소가 부가어로 해석되어 '옆에 차는 물건=옆날'의 뜻으로만 사용된다. 하지만 이

때 접사 -기가 [행위]의 논항구조를 가지고 제1요소가 장소를 나타내는 부가어로 구실하여 '옆에 차는 행위'로 해석되는 경우는 결코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 동사 차다가 가지는 내부논항이 동사성 합성어 내에서 만족되지 못해 통사원리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합성어의 제1요소가 부가어인 경우와 관련하여 동사성 합성어의 제1요소 위치에 부가어와 논항이 동시에 나타날 수는 없는지 알아 보자.

- (18) (a) 하루[만보걷기], 새벽[별보기], 숲불[갈비구이]¹⁴
 (b) 북한[바로알기], 우리말[바로쓰기]

(18a)는 [[부가어-논항-동사]-접사]의 형태구조를 가지며, (18b)는 [[논항-부가어-동사]-접사]의 구조를 가진다고 볼 때, 이들 모두가 제1요소 위치에 두개의 구성소를 가진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보아온 합성어와 구별된다고 하겠다. 하지만 (18)의 예들 모두에서 동사의 내부논항이 동사성 합성어의 범주 내에서 만족되고 있고, 수의적인 부가어는 동사로부터 직접 의미역을 부여받지 않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또한 어순이 자유로운 우리말에서는 격인접조건이 적용되지 않아서 내부논항이 반드시 동사에 인접할 필요가 없으므로 부가어와 내부논항의 배열순서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보겠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우리말 동사성 합성어의 형성과정과 형태구조에 따른 의미해석에 대하여 통사원리를 이용한 측면에서 살펴 보았다. 요약해 말하자면 동사성 합성어의 중심요소는 동사이고 동사가 가지는 하위범주들이 동사성 합성어에서도 만족된다는 점에서 동사성 합성어 형성을 통사적인 과정으로 보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동사성 합성어 형성을 어휘적으로 설명하려는 이론들이 부딪히게 되는 문제점에서 벗어날 수가 있으며, 나아가 독립적으로 필요한 보편적 원리들을 반복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제성과 일반성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통사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형성된 합성어라도 일단 형성된 다음에는 단어범주로서 행동하게 되어 의미변화를 겪으며 기타 단어범주에 작용하는 규칙들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겠다.

참고문헌

- 김진형 (1992). '영어와 한국어의 어형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김창섭 (1983). '줄넘기'와 '갈림길'형 합성명사에 관하여. 「국어학」 12, 73-99.

14) Fabb(1984)는 charcoal steak-broiling, night car-driving, street ballad-singing 등에서 charcoal, night, street가 동사에 인접하지 않아 격을 받지 못하므로 의미역도 부여받지 못하게 되어 합성어로서 불가능한 결합형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은 부가어로서 동사에 의해 의미역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므로 Fabb의 설명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같은 결합형태가 전혀 불가능하다면 본고의 틀에서는 문제가 될 것이다.

- Chomsky, N (1970).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Publication
- Fabb, N (1984). *Syntactic Affixation*. Ph.D. dissertation. MIT.
- Larson, R (1988). On the Double Object Construction. *LI* 19, 335-391.
- Lieber, R (1988). Phrasal compounds in English and morphology-syntax interface. *CLS* 24, 202-222. Chicago Linguistic Society.
- Spencer, A (1991). *Morphological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Sproat, R (1985). *On Deriving the Lexicon*. Ph.D dissertation. MIT.
- _____(1986). The Projection Principle and the Syntax of Synthetic Compounds. *NELS* 16, 462-475.
- Williams, E (1981). Argument structure and morphology. *The Linguistic Review* 1, 81-114.

충남 천안군 병천면 가전리 산37: 한국기술교육대학 교양학부

우편번호: 333-860

Fax: (0417) 60-1110